

국가대표 선수들 ‘佛心 지핀다’

태릉선수촌에 법당 개원...전·현직 선수들 대거 참석

“선수 여러분, 법당에서 마음 다지고 좋은 결과 내세요!”
2008 베이징 올림픽을 6개월여 앞두고 조계종 포교원(원장 혜종)이 1월 23일 태릉선수촌 필승 주체육관 1층 특별행사장에서 태릉국가대표 선수촌 법당 개원법회를 봉행했다.

이번에 태릉선수촌에 개원한 법당은 필승 주체육관 2층에 있으며 전체 평수는 약 70평이다. 사실 태릉선수촌 법당은 이전에도 있었으나 시설이 낙후돼 찾는 사람이 거의 없어 유명무실한 존재였다. 이번 사정을 안 조계종 포교원이 지난해 한마음선원에서 기탁한 포교기금 3억원을 투입해 낙후된 법당을 새로 꾸미고 탕화와 불상을 모시는 등의 노력 끝에 재

개원 법회를 봉행할 수 있게 됐다. 법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불화 연구소장 현종 스님은 태릉선수촌 법당 주지로, 중랑구사암연합회장 법장 스님(조계종 교육부장)은 당연직 운영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이로써 태릉선수촌 법당은 국가대표 선수들의 불심을 다잡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조계종 포교원장 혜종 스님, 포교부장 동범 스님, 포교연구실장 도신 스님, 한마음선원 상임이사 혜근 스님, 체육인불자협회 이기흥 회장과 황영조·전기영·이은경·정성숙 등 전·현직 국가대표 선수를 비롯한 1000여명의 불자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포교원장 혜종 스님은 법어를 통해 “체육은 몸과 마음이 하나가 돼야 뜻한 바를 이룰 수 있는 분야이므로 부처님께 발원하며 열심히 노력해 좋은 결과를 얻기 바란다”며 “앞으로 포교원에서도 각 시·도별 여러 종목 선수들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한마음선원 상임이사 혜근 스님은 “혼자 고난의 시간과 외로움을 견뎌내야 하는 선수 여러분들이 이 법당에서 좋은 결과를 이뤄낼 수 있도록 마음 수발을 할 수 있는 효율적인 도량으로 활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현종 스님은 “육체적 기량, 정신적 안정, 집중력 기를 수 있는 근본 도량으로서의 역

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법회는 불상전안, 경과보고, 감사패 전달, 공로패 수여, 임명장 전달, 연비의식, 한마음선원 합창단·니르바나오케스트라 축하 마당 등으로 진행됐다. 이중 연비의식에는 여러 선수들이 직접 팔을 걷어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선수들은 다소 어색한 듯 보였지만 불자로서 약속하고 서원하는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포교원은 이날 체육인불자 연합회를 전국조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 각 시도지부별 지부장에 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글·사진=김강진 기자



“앗, 뜨겁진 않아요?” 국가대표 불자 선수들이 팔을 걷고 연비의식에 참여하는 모습(사진 위). 태릉선수촌 법당 개원으로 국가대표 선수들의 마음 수발이 한결 쉬워졌다.

“시주하겠다” 접근 사기피해 요주의

서울 종로 인사동에서 차(茶)를 판매하는 양모(54세).

며칠 전 가게로 70대 초반 쯤 되어 보이는 남자 어르신 한 분이 찾아왔다. 그는 자신이 농사를 오 래 지었고, 최근에 농장을 팔아서 10억 정도 되는 돈이 있다며 “이 돈을 꼭 비구니스님이 하시는 불사에 시주하고 싶다”고 말을 건넸다. 자신이 모시던 비구니스님이 입적하시면서 “재산을 비구니 스님의 불사에 시주하라”고 유언 했다는 것이다.

처음엔 경계를 하던 양씨도 용 의자의 말주변이 워낙 좋고 “여 기차 파는 곳에 비구니스님들이 많이 오실 것 같아 찾아오게 됐다”는 등 알리바이도 재차 제시 하자 어느 정도 긴장을 늦추게 됐다. 그러자 용의자는 “은행에서 10억을 수표로 찾아 주겠다. 이 돈으로 직접 불사를 해 보라”고 권유하며 “지금 당장 은행에 다녀와야 하니 돈 5만원만 달라”고 말을 바꾸기 시작했다. 하지만 의 심이 든 양씨는 “지금 2만원 밖에 없다”며 돈을 주어 내보냈다.

이후 양씨는 주위의 아는 비구 니스님들을 대상으로 피해 사례 를 말해주었고, 스님들로부터 비 슷한 경우를 당했다는 말을 들었다. 양씨는 1월 24일 본사에 전화 를 걸어 이 같은 사실을 제보하고 “선심공포로 시주를 하겠다고 접 근해 돈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다 는 것을 스님들과 불자들에게 알 려달라”고 말했다. 또한 양씨는 “용의자는 70대 초반 쯤으로 보 이며 상당한 달변으로 구체적인 사례를 바꾸어 접근하는 것 같다” 며 주의를 요구했다. **여수령 기자**

부처님 8대 성지 성역화 추진

‘정토회’가 인도에 있는 부처님 8대 성지를 성역화 하는 사업을 열 해부터 본격 추진한다.

정토회는 관계자들이 1월 18일 인도 스카시야에서 석가족(사카 족·Shakya) 400여 명과 함께 8대 성지 성역화 사업 선포식을 가졌다 고 1월 21일 밝혔다.

정토회는 지난해 말 이곳의 부지 1만2545㎡를 매입해 호(刹)를 주체 로 삼은 양로복지시설 ‘마하마야 하우스’를 건립한다는 계획을 세워 놓고 있다.

김주일 기자

성직자들 ‘대운하 반대’ 도보순례 나서

수경·도법·연관 스님 100일 대장정에 동참키로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한반도 대운하 추진에 대해 불교계와 시민 단체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각 종교 지도자들이 ‘생명의 강 살리기’를 주제로 100일 동안의 도보순례를 계획하고 있어 주목된다.

불교환경연대는 1월 23일 “불교 스님, 기독교 목사님, 원불교 교무님, 천주교 신부님, 성공회 신부님 등 종교·시민사회단체 대표자 및 실무자들이 결합하여 이명박 운하 반대 활동 일환으로 ‘생명의 강 살리기 순례 대장정’을 전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도보순례는 2월 11일부터 진행된다. 코스는 한강하구에서 출발해 남한강을 거슬러 경부운하의 종착지인 낙동강 하구까지 종단한다. 이어 영산강과 금강을 거쳐 남한강 합류 지점까지 한반도 대운하 예정지 전역을 도보로 직접 순례한다. 순례 중 곳곳에서 지역민과의 대화마당도 열어 전국민 동참을 호소할 계획이다. 순례단 규모는 각 종교 성직자, 환

경 단체 실무자 등 40여명으로 꾸려질 전망이다. 불교계에서는 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수경 스님(화계사 주지)을 비롯해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상임대표 도법 스님, 실상사 연관 스님 등이 동참한다.

수경 스님은 “한반도 대운하가 환경과 문화재 훼손에 대한 심각한 상처를 남길 것으로 판단해 대운하 건설 예정지를 돌아보며 운하 건설로 파괴될 지도 모르는 생명에 대한 참회를 위해 순례길에 오르기로 했다”며 “조만간 회의를 통해 도보순례에

김주일 기자

진공청소 · 물걸레청소 · 구석청소 마미로봇이 한방에 다 한다

힘들지 않고 청소하는 **로봇청소기-마미로봇**

대리점 문의 제품 구입 **1588-7402** 인터넷 검색엔진 **마미로봇**

Mamirobot (주)경인메카트로닉스 www.mamirobot.co.kr

₩275,000 (소비자기격) 입금계좌:기업은행 018-072448-01-015 [예금주:정승림]

달마 오븐 스노보드

제6회 챔피언십 개최

달마오븐 조직위원회(공동 대표 정남·인목)가 ‘제6회 달마 오븐 스노보드 챔피언십’을 1월 30일 홍천 대명 비발디파크 스키월드(익스트림 파크)에서 개최한다.

이 대회는 용문사 주지 호산 스님이 2003년부터 매년 운영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직접 진두지휘하는 불교계 유일의 스노보드 대회다. 호산 스님은 대회 시작 전 직접 하프파이프(프도)를 이용한 공중기술을 이용한 보드 시범을 보여 스포츠를 통한 불교 포교의 일환으로 색다른 볼거리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번 대회는 올해 처음으로 국제대회로 승격, 10여명의 외국인 선수도 참가할 예정이다. 이번 대회는 1월 30일 오전 8시30분에 개회식을 갖고 주니어와 아마추어, 프로로 나뉘 펼쳐진다. (031)773-3797

김강진 기자

“1사찰 1논문’ 사업 교계 최초 시행

한국불교선리연구원

교계 최초로 한 사람이 불교학자 한명을 지원하는 ‘1사찰 1논문’ 사업이 펼쳐진다.

한국불교선리연구원(원장 법진)은 21일 열린 신년계획 기자간담회에서 ▲1사찰 1논문 지원 등 불교학자 연구비 지원 확대 ▲선리 아카데미 개원 ▲학술진흥재단 등재 추진 등 주요 사업계획을 밝혔다.

불교학계는 이번 1사찰 1논문 사업이 성공할 경우 불교학자들이

조동섭 기자

“상담포교인력 양성기반 구축할 것”

조계종 불교상담개발원

조계종 불교상담개발원(원장 정덕)이 1월 18일 올해 사업계획을 내놓았다. 올 불교상담개발원의 목표는 크게 ▲불교상담대학 안정적 운영을 통한 상담포교인력 양성기반 구축 ▲불교상담심리사 배출 및 활동 지원을 통한 대외위상 정립 ▲불교상담 분야의 연구인력 확보 및 지

원을 통한 연구 활성화 ▲외국인 근로자 문제 해결을 위한 상담지원사업 전개로 나눌 수 있다.

이밖에도 불교상담개발원은 지난해 11월 경찰상담위원으로 위촉된 스님 24명을 지속적으로 전국 중앙경찰청과 지방경찰청에 파견해 경찰 상담도 의욕적으로 계속 실시한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고 전했다.

김강진 기자

이것이 바로 “우주적 신불교의 진면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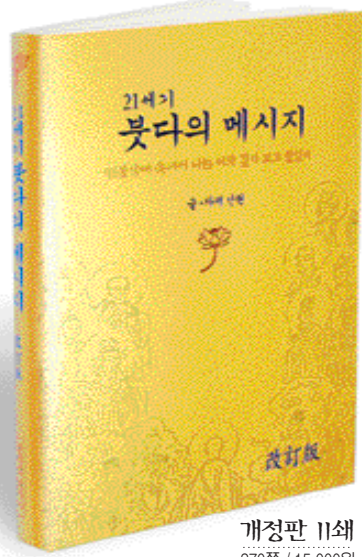
영산불교 현지궁에서 펴낸 위 불서 3권은 팔만대장경의 진수와 동서고금의 종교철학사상을 뛰어넘어 우리 인간의 확실한 생사관과 절대계의 붓다님들의 소식을 파헤친 이 시대 최고의 보서(寶書)이다.

이 책은 모든 호법선신이 옹호할 것이며, 성증과 나한이 삼재팔난을 제거할 것이다. - 불세존 말씀 -

거룩하고 익유한 미증유의 성서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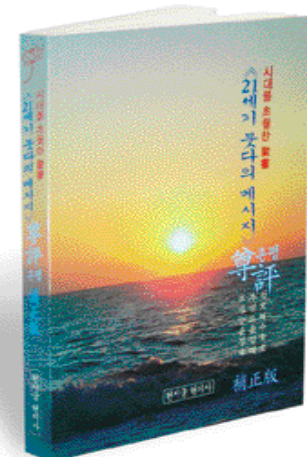


12쇄 발행 11쇄 이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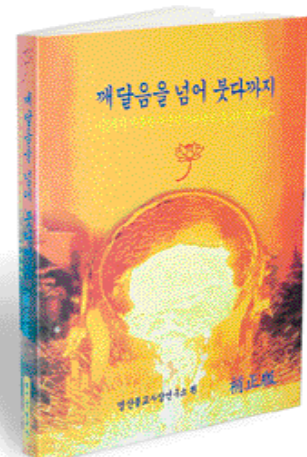
개정판 11쇄 370쪽 / 15,000원

존명의 신기원을 연 마스터피스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尊評”



보정판 4쇄 489쪽 / 15,000원

위대한 우주적 메타종교, 불교의 법세계 “깨달음을 넘어 붓다까지”



보정판 4쇄 509쪽 / 15,000원

위대한 이 시대의 고전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책자의 생사관에 대한, 네 영체에 관한, 그리고 깨달음을 넘어 붓다까지의 큰 스님 법설을 통해서 나는 누구이며, 나는 무엇이며, 무엇을 위해 살 것이며, 왜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게 되었다. ○○○의 설명으로는, ○ 불교의 교의로는 도대체 판단이 서지 않았던 것이다. 그동안 나는 그저 살았다고 해야 할까..... 나는 이제 현자사 크스님을 만나 인생의 의미를 뚜렷이 알게 되어 매일 매일 보람을 창조하며 사람답게 살아가고 있다.

사람이 죽으면 어찌 되는지 현대를 사는 모든 이들에게 종교를 초월해서 누구나 이 세 권의 미증유의 성서를 꼭 필독해보시라 바란다. - 지법대학교 의과대학 주임교수